

영산강 '폐놀 방류수' 물고기에 치명적

■ 광주과기원 환경공학과 연구 보고서 하수처리장 기준치 맞춰 배출해도 부근 물고기 상류의 3분의 1 불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영산강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수가 상류지역에 비해 최고 3분의 2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에 맞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방류수에는 폐놀 등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의미다.

독성학연구실(연구책임자 김상돈 교수)은 14일 '방류수 독성평가를 위한 화학적·생물학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영산강 수계 방류수와 생태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나주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상류(만봉천, 매관)에서는 어

류가 15종 273개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수처리장 아래 하천에는 33%에 불과한 9종 90개체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성 하수종말처리장 상류 지점(장성을 잠성촌)에서는 19종 554개체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반면, 하수처리장 인근에서는 41.3%인 9종 229개체만이 확인됐다.

과기원은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방류수에서 15~24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인근 하천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다른 하천에 비해 높다는 조사 결과는 있었지만, 서식하는 어

류의 종과 개체수가 크게 적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다.

김상돈 교수는 "하수처리장은 탁도와 일반 유기오염물은 걸러내지만 폐놀 등 유기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기준이 없어, 이 같은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배출기준은 BOD·COD·SS(부유물질) 등의 농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성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을 물벼룩의 5%가 죽을 수 있는 하천 독성 기준인 0.1TU(TOXIC UNIT)로 하자"고 제안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니원침 (6880)



연예24동원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명만 3534명
문의 (062)366-4220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인2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알권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보도내용은 자본독재의 심각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검찰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무리하게 기사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남뉴스

코카콜라 115만병 회수

독극물 주입 여부 검사

한국 코카콜라보틀링(주)은 14일 광주 시 북구 양산동 공장에서 회수된 5개 지역에서 회수한 코카콜라 115만병에 대한 독극물 주입 여부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코카콜라 독극물 주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사건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41·여)씨가 코카콜라에 협박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모 병원 CCTV 화면과 당시 입었던 옷, 협박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이 찍힌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검찰에 넘겼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미국 입양아 21년만에 친부모 상봉

○21년 전 가족과 헤어졌던 입양아가 수순론 끝에 친부모를 만나 눈물의 상봉.

○2살 때 목포에서 미아로 발견돼 나주 이화영아원에서 머물다가 미국으로 입양됐던 고선영(22·여·미국명 마가렛 선영 호우(Margaret Sun Young Howe))씨는 14일 나주경찰서 서장실에서 부모를 만나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해.

○뿌리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없었던 고씨는 자신이 머물렀던 영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지난 6월 초 한국을 다시 찾았다가 나주경찰서의 도움으로 친부모를 찾게 된 것.

나주=정철한기자 chjung@kwangju.co.kr



반가운 여름 즐거움 동심 광주 낮 최고기온이 32.7도를 기록한 가운데 14일 광주 금호 패밀리랜드 야외수영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마지막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7월 15일
(음 6월 20일)

광주	25~30℃
목포	25~30℃
여수	24~27℃
완주	24~29℃
구례	25~31℃
해남	24~29℃
남원	24~29℃
고흥	23~28℃
진안	24~31℃
무주	25~31℃
진천	25~30℃
익산	26~31℃
정읍	25~30℃
고성	26~31℃
완주	24~31℃
영광	25~31℃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서해남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05:21 썰물 10:31
여수 밀물 12:07 썰물 06:02

17:32 22:3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6	23/26	23/28	23/30	22/30	23/29

연휴 내내 장맛비

광주·전남, 천둥·번개 동반 호우

15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3일 동안 천둥과 번개·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광주·전남지방에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백두산까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연휴 첫날인 15일 오후 늦게부터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우량은 20~60mm이다.

휴일인 16일과 제한일인 17일에도 남해안 일대에 장마전선이 머무르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강풍도 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비는 18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기상정보에 유의하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새벽에도 광주·전남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편한 밤을 보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6도 ▲나주 25.4도 ▲장성 25.2도 ▲화순 26.2도 등 내륙지방 대부분이 25도를 웃돌았다. 열대야 현상은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합평 사립고교 '금품채용' 제보

전남도교육청, 진상 조사 나서

합평지역 한 사립고교 간부가 행정실 직원 채용과정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뒤 되돌려줬다는 제보가 접수돼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가 나섰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가 'A씨가 모 고교 행정실 직원 채용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간부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으나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됐다'며 해당 학교 감사를 지시했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날 '모 고교 관계자가 행정실 직원 채용대가로 참가금과 현금 1천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립을 채용한 뒤 문제의 돈을 돌려보냈다'는 폭로성 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해당 고교 측은 "지난달 A씨가 학교 건부의 집을 방문, 행정실 직원 채용을 부탁한 뒤 참가금을 놓고 갔지만 그 안에 현금 1천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감사를 지시하는 공문이 내려온 만큼 조만간 해당 고교에 감사팀을 파견,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서 올 첫 비브리오 환자

젓갈 먹은 50대 입원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목포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는 14일 "지난 5일부터 발열과 오한, 설사 등 몸살증상이 계속되던 조모(52·목포시 용해동)씨의 혈액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비

브리오 패혈증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염된 오징어젓갈을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소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4일 목포 모 병원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어선 추돌·침몰... '뺑소니 선장' 검거

13일 새벽 어선을 추돌, 침몰시킨 뒤 달아난 가해선박과 선장이 극적으로 구조된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해경의 신속한 수사로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어선과 충돌한 사실을 알고 고도 그대로 달아난 부산선적 125t급 예인선 도승 1호 선장 유모(59·부산시 영도구)씨 등 선원 5명을 14일 오전 7시 30분경 정박중인 경남 진해시 초리도 남동쪽 0.9km 해상에서 붙잡아 목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유씨는 자신의 예인선이 13일 오전 3시에 신안 흑산도 남동쪽 14km 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40t급 장어잡이 통발어선 305 장덕호를 추돌한 사실을 당직 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고도 그대로 항해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조된 장덕호 선원 심만철(34·부산시)씨로부터 사고를 파악하고 해군과 육군 레이더 기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사고 시간대 운항 선박에 대한 항적을 정밀 분석한 끝에 유씨를 잡았다.

심씨는 "가해선박 부선의 속도가 느려 다가갈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심씨는 "가해선박 부선의 속도가 느려 다가갈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심씨는 "가해선박 부선의 속도가 느려 다가갈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목포·완도·여수·제주 해역에서는

2004년 64건, 2005년 45건, 올 상반기 12건 등 총 121건의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뺑소니 선박 6척도 모두 붙잡혔다.

목포=이승배기자 lsh@kwangju.co.kr

김우중씨 사촌 동생 김

50조 비자금 사기 적발

김우중 전 대우그룹 명예회장의 사촌 동생과 전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등이 '해외에 예치된 50조원 규모의 대우 비자금을 반입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김 전 회장의 사촌동생인 김모(59·외자유치 컨설팅업체 C홀딩 회장) 등 4명에 대해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K(44·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K씨 등은 액면 금액 500억달러(50조원) 규모의 위조 예치금증서 등을 제시하며 조경업체 S사 대표 윤모씨 등을 속여 작년 10월부터 투자 계약금, 신용증 개설 수수료, 서류 심사대금 등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車 4천억대 사기 전종진씨 브라질서 체포

한국으로 강제송환

아시아 자동차(기아자동차 옛 계열사)를 상대로 4천억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던 중 브라질로 잠적했던 전종진(45·일명 스톤리 전)씨가 13일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에서 4천억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종진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은둔생활을 해온 전씨가 이날 오후 8시에 상파울루 시내 모처에서 연방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전씨는 14일 중 인턴풀에 신병이 넘겨진 뒤 곧바로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전씨 체포는 연방 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브라질 법무부에 전씨의 체포 및 강제송환

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003년 9월 초부터 인터넷에 의해 적색수배된 상태로 브라질 상파울루 시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고 신분을 위조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그동안 브라질 한인교사회에서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사업가로 행세해 왔으며, 현재는 상파울루 시 인근 고급 주택가 지역에 대형 골프장을 건설 중이다.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회사 대표이었던 전씨는 1996~1997년 타우너, 토피 등 경승용차 수입대금 1억8천여만달러를 갖지 않고 현지법인 증자대금 2억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3억8천여만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연남뉴스



e-러닝 설명회 KT컴퍼스(본부장 허성)와 고려교육(회장 문상주)은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지역 150개 학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KT컴퍼스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e-러닝(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